

2010

11월 28일

제18권 48호

마데데스

14권 48호 144쪽 1043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칼럼 column

목사를 이용하라 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누구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열망이 앞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관심의 증거다.

하지만 현대 교인들의 성경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어찌 보면 현대 교인들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열망이 더 크고 오직 얻기 위해 신을 찾는 일에 더 바쁘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산다.

물론 궁금해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복음을 벗어난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비록 복음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신자라면 물을 줄 알아야 한다. 묻고 답을 들으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질문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보면서 뭔가 벽에 부딪히

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끊임없이 의문이 발생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대 교인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예수님을 찾아가 물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지금 과연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할까? 서점을 찾아가 책을 보면서 의문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답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에 신자는 목사를 철저히 이용을 해야 한다. 목사를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 삼고 이용을 해야 한다.

목사는 결코 신자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섬길 대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한분뿐이다. 만약 누구든 목사를 섬길 대상으로 여기고 목사를 섬김으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목사의 기도가 응답의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목사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아는 목사라면 교인들의 그런 생각에 경종을 울려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는 신자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대상이다. 목사 또한 목사의 존재 이유를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자신을 신자에게 이용당할 존재로 여길 것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낮 설교



성전세 문제 마 17:24-27

신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일 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말하는 교인입니까? 아마 여러분을 신자가 아닌 교인이라고 한다면 심한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신앙을 묵살하는 용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교인의 속성을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로 살지 못하고 교인으로 살았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헌금, 찬송, 설교듣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것을 신앙과 연계하여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교인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예배, 기도, 헌금 등으로 확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말하는 교인의 수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행위를 신앙의 증거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의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즉 신앙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시각을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신의 행위를 신앙의 증거물로 바라볼 때는 헌금을 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신앙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신자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증거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헌금이란 무엇이든 자기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

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성전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출 30장을 보면 반 세겔은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규례로써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성전 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 세겔을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였고, 그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바치는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은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성전을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고, 그것은 반 세겔, 즉 성전 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 세는 성전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유지되는데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반 세겔을 바치는 일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성전 세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 세겔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 세겔은 죄를 속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가 없고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이거나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처럼 정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전 세를 내지 않는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 세는 1년에 한 번 바쳤는데 예수님 일행은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느라고 미처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전 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 세를 내지 않았으니 내라'고 요구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말없이 ‘낸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써 성전 세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당연히 성전 세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5절)라고 물으십니다.

고대사회에서 임금은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아들 또한 세금을 받는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에게서 받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는 말씀으로 성전 세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뭘 바칩으로써 아들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전 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세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현대 교회가 헌금을 신앙의 증거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세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의무적인 행위로 여기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타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처럼, 헌금을 신앙의 증거물로 여긴다거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타인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인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

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만듭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신 사건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관계로 인도하는 영광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다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철없는 아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잘못됨을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아는 신자는 아들이 되거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써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7절)는 말씀을 합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는 것은 아들은 성전 세라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를 내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세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세를 낸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 세를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해서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은 여전히 헌금을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아주 이상합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 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러한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하고 그것으로 성전 세를 내라는

것입니까? 당시 제자들 가운데는 회계를 보는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회계를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명목과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돈에서 성전 세를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은 성전 세를 바치되 거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도 포함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린 고기에서 한 세겔을 얻는다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것을 성전세로 바친다면 '바쳤다'는 것이 자신의 공로나 의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애당초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을 바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헌금을 하는 것에도 이 같은 생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낚시로 건져 올린 고기의 입에서 얻은 한 세겔처럼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을 신앙적인 행위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알게 하는 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자와 함께 교제할 수 교회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께 주어진 것으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무라는 것이 없고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주어진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긴다면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돈으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입니다. 욕망을 간파할 때 신자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복음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미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거짓 것을 믿음

살후 2:8-12

(5장 11.7일 설교)

9절에 보면 사도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창조와 함께 세상에 등장한 존재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잃고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탄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임한 저주와 죄는 사탄을 근거로 했을 때 설명이 가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고 저주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셨는지도 사탄을 근거로 했을 때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사탄이란 존재를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사탄을 추상적인 존재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탄이 무엇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되어 살아가면서도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작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못 가도록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자신에 대해 철저히 감추고 활동합니다. 인간이 선으로 여기는 것을 이용하여 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선에 악을 감추고 선으로 가장하여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여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 강한 존재, 영광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신의 존귀함과 강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장악된 인간의 실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발버둥 치니까? 모두

가 자신의 존귀와 영광과 강한 힘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것이 곧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는 것 또한 인간의 원하는 인생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불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가 신앙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것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나타나는 죄라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십일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나,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들이 사실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짓된 말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9,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고 말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악한 자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악한 자가 보여주는 능력과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할만한 놀라운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표적이 있는 곳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가장하여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활동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미혹을 따라 보이는 것을 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는 누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가 사탄의 활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용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에 갇힌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이 믿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

을 받은 신자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능력이나 표적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이 참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자에게는 십자가 사건만이 표적이고 참된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고침 받은 사람도 결국은 죽지만 십자가 안에서 신자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능력과 표적으로 여기고 참된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보다 사랑이 더 크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곧 십자가로 증거된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는 신자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표적이 있다는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1,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세상이 거짓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심으로써 세상이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나 불의를 행하고 거짓된 말로 세상을 미혹해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의 거짓된 말을 따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활동으로 세상이 불의와 거짓 된 것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면 관심은 자연히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에 갇힌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어떠한

단계 되고 그 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신자입니다.

진리의 사랑 아래서는 나의 존귀와 영광과 힘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존귀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존귀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신자의 눈에는 자신의 존귀와 영광과 세상에서의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악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고, 자신을 충동질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단 한 순간도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지옥 보낼 자는 지옥으로 보내시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 아래서 신자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삶으로부터 초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능력과 표적을 체험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덮쳐온 신자로서 그 사랑에 붙들려 살기를 소원한다면 이미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수요일

설교



하박국의 호소

합 1:1-11

(1장 11.17일 설교)

하박국 성경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훔과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한 사람으로써, 유다가 앗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하박국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반면에 이방인

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심판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곁팔과 강포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라는 부당함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세상에 의를 세우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박국의 호소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박국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불의가 가득합니다. 곁팔과 강포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자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불의한 자가 편안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현실이 신자를 답답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호소처럼 불의함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자를 핍박하는 악한 자에 대해서도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형통을 누리고 이방인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합니다. 6-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고 말합니다.

앞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다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 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 ‘고통에서 건져 주시겠다’ 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복 받을 때가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는 말처럼 막연한 희망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든 이 같은 말로 교인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세상의 중심에 유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려는 것이 당연한데 왜 고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하고 세상의 모든 일도 나를 돕고 복이 되는 방향으로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육신입니다. 복과 형통이라는 말도 육신을 근거해서 이해합니다. 육신이 잘되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육신이 것처럼 가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은 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으로 포장해 해도 그것은 껍데기를 가리는 것일 뿐, 결국 흠일뿐입니다. 복과 형통을 누려도

결국 흠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한대로 일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는 즉시 심판하시고, 신자는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자신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 기쁨을 위해 삽니다. 이것은 분명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다고 한다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 추구하는 참된 신앙은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구분되게 됩니다.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모두 신앙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이 있게 하시고,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하도록 하심으로써 신앙과 신앙 아닌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계속되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돕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잘됨이고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불안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구원을 바라보도록 도우시고,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함 께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310장
교 독 문	52(시 119)
기 도	조규현 장로
찬 송	439장
성경봉독	마 17:24-27
설교제목	성전세 문제 (114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16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6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영민 장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79장
기 도	김윤점 집사
찬 송	430장
성경봉독	살후 3:6-18
설교제목	떠나라 (8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26장
주기도문	다함께

다음주기도 : 박신자 사모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아박국 강해(3강)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신윤식



개울은 결국
강으로 들어가고
강은 또 다시
바다로 도착하듯

그리로 가는 길
가고 가다 보면
때론 지치는 것도
때론 의심이
찾아들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생각만으로
어서가자 하지 않아도
걸음은 그리로 향한다.

힘겨운 길이기도 하고
아득한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가지 않을 길이 아니고
오지 않을 날도 아니니

온다 하는 약속 안에서
그 날은 오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온다.

교회소식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